

밀레니엄 묘지문화

조 정 응 / 서부지방산림관리청장

토지이용은 역사적측면에서 보면 농업적이 용에서 비농업적이용으로 변천해가고 있다. 비농업적이용이란 묘지적 이용, 도시 및 산업 적이용, 휴양적이용 등으로 묘지적이용에 대 한 우려와 문제의 제기는 이미 고려 경종때부 터 문헌에 나타나고 있다. 그 당시에는 국토 전체에 비해 묘지수요가 미미할 뿐만아니라 토지가 한정되어 있기에 개간하여도 그리 사 회적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은 과학기술의 발달, 지속적 인 인구증가, 핵가족화와 급격한 도시화의 진 전으로 토지의 한계성이 나타나고 묘지적이 용이 주로 산지에서 이루어져 제한된 면적으 로 말미암아 단기적으로는 묘지에 대한 수용 능력의 한계와 풍수지리에서 이르는 명당 찾 기가 어렵고, 장기적으로는 자원으로서의 산 지 및 국토의 효율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등 장하였다.

전국의 분묘수는 1998년말 현재 약 2,013 만기로 총묘지 전체 택지면적의 절반이며, 서 울면적의 1.6배, 전국 공장부지의 3배를 넘는

수준이고 매년 20여만기의 신설묘지로 여의 도의 1.2배만한 산지가 묘지로 탈바꿈하여 산 은 현옷을 기운 것처럼 불쌍사나운 모습을 드러내고 제대로 임업경영이 안되기 때문에 연 간 목재소요량의 90%이상을 외재에 의존하 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산업용지 및 생활공간 축소 등이 국토 장식의 주 요인이 될 뿐만아니라 땅 한 평이 아쉬운데도 요즈음은 농경지까지 잠식되고 있어 살아 있을 때보다 죽어서 차지하는 땅의 면적이 더 넓다고 한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묘지공급 부족으로 앞으로 서울은 2년, 수도 권 지역은 5년, 전국은 10년 이내에 집단 묘지의 공급한계가 나타날 뿐만아니라 50년 후 에는 어디에도 묘지를 쓸 곳이 없게 된다고 하니 걱정스런 마음이 앞선다.

호주의 원주민들은 자신이 죽을 때가 되면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들판에서 생을 마 감한 후에는 독수리 등에게 자신의 몸을 내주 어 그 동안 먹고 살기위해 죽였던 동물들에게 은혜를 갚는다고 한다. 그들은 자연에서 얻은

만큼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자연순환의 법칙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가까운 일본은 불교 및 유사종교의 영향, 철저한 법적 규제와 강력한 행정지도를 한 결과 화장률이 전국적으로 98.7%에 이르렀고 또한 개인묘 대신 가족중심의 납골시설이 생활공간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제 우리 나라도 묘지수요를 줄이고 산지에서 이루어질 묘지용도와 타용도 간에 적절한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인가가 국토이용과 묘지문제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자원으로서의 산을 이용하고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묘지문화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요즘 우리사회에서는 묘지문화를 바꾸기 위해 火葬遺言을 남기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묘지강산」을 남겨주지 않기 위해서는 꼭 해야만 하는 일이다.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 성묘를 하는 비율이 68.3%,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이 11.8%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성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세대를 내려갈수록 점차 묘소의 위치를 잃어버려 결국 무연고 분묘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들은 자연의 일원으로 살다가 自然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우리들의 삶의 발자취는 가족과 우리를 아는 이의 마음속에 남도록 하고, 이 좁은 땅에 묘지라는 우리들의 痕迹을 만들어 놓아 후손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새 천년 처음 맞는 이번 설날에 墓地文化에 대하여 온 가족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